2012
Tree of Culture

Esoteric knowledge within the ancient culture of the Hunnu State

흉노 고대문화로부터 비밀리에 전해 내려오는 지식

Pre-Tree of Culture, Seoul

무巫·무武·무舞

문화다움
DaumSociety

목 차

- 개 요 4

소개

"Tree of Culture" 돌아보기와 내다보기 5
추미경 / (사)문화다움 상임이사,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Session 1

- **무속.무예.무용을 통해 찾아보는 유목민족의 흔적, 그 비밀스러움** 13
  발제: 강준혁 / 문화기획가, 성공회대 문화대학원장

- **렉처퍼포먼스**
  처용무 - 이진호 /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전수교육 조교
  도살풀이 - 김운선 /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김숙자살풀이춤 전수교육 조교
  검무 - 한무 육태안 / 전통무예가, 수벽치기 전인
  강태환 / 알토 색소폰

Session 2

- **고대 리더그룹의 교육기관화랑,선배제도로부터의 무巫.무武.무舞** 19
  발제: 추미경 / (사)문화다움 상임이사

Session 3

- **기마민족의 말馬 문화로부터의 무巫.무武.무舞** 29
  발제: 강인욱 / 부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고고학자

개요

- 일　　시 : 2012년 6월 7일(목) 12:30~16:30
- 장　　소 : 문화역서울 284 2층 그릴
- 주최/주관 : (사)문화다움
- 후　　원 : 행정안전부

※ 사회 : 추미경 / (사)문화다움 상임이사

시간	내용
12:30~13:00	**참가자 등록**
13:00~13:20	**Intro** ▪ **여는말 - 이상일 / (사)문화다움 이사장** ▪ **인류문화창고 프로젝트 소개 - 추미경 / (사)문화다움 상임이사**
13:20~14:10	**Session 1.** ▪ **무속 . 무예 . 무용을 통해 찾아보는 유목민족의 흔적 , 그 비밀스러움** 강준혁 / 문화기획가, 성공회대 문화대학원장 • **렉처퍼포먼스** **처용무** - 이진호 /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전수교육 조교 **도살풀이** - 김운선 /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김숙자살풀이춤 전수교육 조교 **검무** - 한무 육태안 / 전통무예가, 수벽치기 전인 강태환 / 알토 색소폰
14:10~14:30	**휴식**
14:30~15:10	**Session 2.** ▪ **고대 리더그룹의 교육기관**화랑, 선배제도**로부터의 무**巫**.무**武**.무**舞 추미경 / (사)문화다움상임이사,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15:10~15:50	**Session 3.** ▪ **기마민족의 말**馬 **문화로부터의 무**巫**.무**武**.무**舞 강인욱 / 부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고고학자
15:50~16:30	**종합토론** 발제자, 참가자 전원 ▪ **네트워크 파티**

INTRO

“Tree of Culture” 돌아보기와 내다보기

Looking Back and Forward “Tree of Culture”

추미경
(사)문화다움 상임이사,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Intro

“Tree of Culture” 돌아보기와 내다보기

추미경
(사)문화다움 상임이사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1. Tree of Culture가 시작된 배경

인류의 오래된 역사에 비해 현 시대는 서구 중심의 문화적 질서로 편향되어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서야 전 지구적으로 지역별 고유 가치에 주목하게 되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근·현대로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서구 중심의 문화에 종속되거나 자국의 전통이 왜곡되는 과정이 수반되었다. 때문에 자국 또는 아시아적 문화가치에 대한 인식이 내재적으로 자연스럽게 진화하지 못하고 서구적 관점에 경도되어 있거나 아예 고유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패러다임과 함께 개별 역사의 중요성, 지역적 고유성과 차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스스로의 고유한 문화 가치와 아시아적 공동의 문화뿌리 등에 대해 주체적 관점으로 새롭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브리야트 공화국 동시베리안 예술아카데미(ESSACA), 몽골 국립예술대학 (MSUCA), 한국의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DAUM)를 대표하는 3명의 렉터가 3 Rectors’ Meeting을 2008년부터 시작하게 된 것도 큰 차원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동북아시아 내에서 국가 간 또는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는 최근에 활발해지기 시작했지만 대체로는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며 상호이해를 위한 본질적 차원에서의 문화적 이해와 소통, 접촉은 다소 피상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3 Rectors’ Meeting은 기존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에서 빠져 있는 문화적 접촉, 상호 문화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소통 등을 위한 주제와 방법에 주요한 관심으로 가지고 시작되었다.

3 Rectors' Meeting 의 시작을 돌아보면 몽골의 전통축제 <Nadaam Festival>과 연계해서 2006 년 메타기획컨설팅(METAA)이 새롭게 추진하기 시작한 <Culture Nadaam>의 준비과정에서 메타, 다움, 그리고 몽골 국립예술대학이 상호 문화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 그 전제가 되었다.

2006 년 MSUCA, METAA, DAUM 의 협력을 시작으로 2008 년에는 러시아 브리야트 공화국 동시베리안 예술아카데미와 상호 문화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동시에 3 개 기관 Rector 의 2008 년 Pre-Meeting 이후 연례적 미팅을 공식화하고 주제를 가지는 국제문화포럼으로 개최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포럼 명칭으로 바이칼 문화포럼이 제안된 가운데 포럼의 장기적 주제로 <Tree of Culture>가 결정되었다.

<Tree of Culture>는 공통의 문화 뿌리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몽골, 러시아 브리야트 공화국의 예술가, 문화기획자, 문화연구자들이 공통의 문화예술 뿌리와 관심에 대해 상호이해 폭을 넓힘과 동시에 구체적인 문화예술협력 작업을 통해 이론적 접근을 넘어 문화기획을 염두에 둔 소통과 예술교류행사 등을 결합하고자 하는 장기적 관점의 프로젝트로 시작하였다.

2. Tree of Culture 2008~2010

Tree of Culture 2008

세 나라 대표의 사전미팅

– 러시아 브리야트, 바이칼호수

[개요]

- 일 시 : 2008 년 10 월 10 일(금) ~ 11 일(토)
- 장 소 : 러시아 브리야트 공화국 바이칼호수 인근 캠프
- 프 로 그 램 : 문화체험, 대화와 논의, <Tree of Culture>에 대한 제안과 협의
- 주요 참석자 : 라이사 총장(동시베리안예술아카데미(ESSACA)/브리야트공화국)
  체데프 총장(몽골국립예술대학교(MSUCA)/몽골)
  강준혁 원장(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DAUM)/한국)

Tree of Culture 2009

창조성의 도구로서 유목민의 상상

- 몽골, 고비사막

[개요]

- 일시 : 2009 년 7 월 13 일(월) ~ 15 일(수)
- 장소 : 몽골 고비사막 내 에너지센터 'Shambala'
- 참석 : 한국- 강준혁 원장, 추미경 교수, 샤먼(김금화, 이지녀), 다움 staff
  몽골- 체데프 총장, 바이라 교수, 국립 샤먼, 몽골대 교수 및 staff
  러시아 브리야트 공화국 - 라이사 총장, 도르쥐 교수, 샤먼, staff

[프로그램]

구분		내용
Pre - Event		- Pre-Meeting, Reception 등 - 에너지 센터 인근 문화탐방 // - 몽골 전통 공연
국제 문화 포럼	세미나 주제 발표	- 주제 발표 1. <Tree of Culture: 창조성의 도구로서 유목민의 상상력> - 발표자: 체데프 총장(몽골), 라이사 총장(러시아 브리야트), 강준혁 원장 (한국)
	렉처 퍼포먼스	- 세 기관의 렉터와 각국의 샤먼이 공동으로 렉처 퍼모먼스 운영 - 샤먼 게이트(Shaman Gate)를 통해 본 유목적 상상력 - 각 국의 무속(제례) 의례 시범 (실행) - 각 국의 무구, 무악기, 무의 비교 세미나
	세미나 주제 발표	- 주제 발표 2. <유목적 상상력과 창조성 이슈> - 발표자: 바이라 교수(몽골), 도르쥐 교수(러시아 브리야트), 추미경 교수(한국)
Post - Event		- Closing Party 등

Tree of Culture 2010

유목사회에서 정주사회로의 이전에 따른 예술형식의 변화

- 한국, 서울 & 강릉

[개요]

- 일시 : 2010 년 11 월 17 일(수) ~ 20 일(토)
- 장소 : 문화답사(강릉선교장) & 국제문화포럼(서울, 바비엥Ⅱ)
- 참석 : 체데프 전총장, 알탕체첵 촐롱 부총장, 장가 가수(몽골국립예술대학교)
  라이사총장, 도르쥐부총장,샤먼,야트가 연주자(동시베리안예술아카데미)
  강준혁 원장(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한국), 판소리 명인(왕기석)
  이상일 이사장(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이사장)
  추미경 이사(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상임이사/한국)

[프로그램]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Pre-Event
(문화답사)</td><td>- 일시 : 11 월 17 일(수) ~ 18 일(목) / 장소 : 강릉 선교장
- 내용 : 한국 전통문화 체험 / 2008~2009 프로젝트 진행 내용 공유
/ 2010 프로젝트 프로그램 공유 및 사전 대화</td></tr>
<tr><td>국제
문화포럼</td><td>- 일시 : 11 월 19 일(금)/ 장소: 서울 바비앵 II
- 주제 : 유목사회에서 정주사회로의 이전에 따른 예술형태의 변화
- 사회 : 추미경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상임이사)
<table>
<tr><td>발표 1.</td><td>- 몽골 전통(구전)문화에서의 칭호를 명명하는 관례
- 발표자 : 체데프 전 총장/ 몽골</td></tr>
<tr><td>발표 2</td><td>- 정주사회 몽골인들의 전통의상의 진화
- 발표자 : 알탕체첵 교수/ 몽골</td></tr>
<tr><td>퍼포먼스</td><td>- 몽 골 : 장가</td></tr>
<tr><td>발표 3</td><td>- 문화 속의 상징 혹은 기호의 인지방법들과 숨겨진
지식으로서의 현상과 호칭
- 발표자 : 라이사 총장/ 러시아</td></tr>
<tr><td>퍼포먼스</td><td>- 러시아 : Yatga play</td></tr>
<tr><td>발표 4</td><td>- 하나의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서사극이나
오페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
- 발표자 : 강준혁 원장/ 한국</td></tr>
<tr><td>퍼포먼스</td><td>- 한 국 : 판소리</td></tr>
</table></td></tr>
<tr><td>Post-Event</td><td>- 2011 프로젝트 주제 협의 및 Closing Party</td></tr>
</table>

3. Tree of Culture 2011, 그리고 향후

Tree of Culture 2011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유목적 신호
-러시아 브리야트공화국 & 바이칼 호수

[개요]

- 일시 : 2011 년 6 월 22 일(화) ~ 26 일(일)
- 장소 : 러시아 브리야트 동시베리안 예술아카데미, 바이칼 호수 인근 캠프
- 참석

러시아 ESSACA	라이사 총장, 도르쥐 부총장 외 ESSACA 교수, 예술가 등
몽골 MSUCA	소닌토고스 총장, 알탕체첵 부총장, 수크벳 학장(문화와 문명대학), 르캄체런 (학술사무대표), 엔크-암가란 (몽골 전통음악 교사).
한국 DAUM	강준혁 (성공회대 문화대학원장), 추미경 (DAUM 상임이사) 강인욱 (부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전수환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이론과 교수), 이승욱(프리랜서 문화기획자) 및 Staff

[프로그램]

구분	내용
Pre-Tree of Culture, Seoul 2011	■ Pre - Tree of Culture 2011: 한국 프로그램

주제 1	- 개인적 소통으로서의 환대와 예술적 소통으로서의 표현에서의 유목적 시그널에 대해 - 발제 : 강준혁 (문화기획가, 성공회대 문화대학원장)
주제 2	- 상업적 소통으로서의 시장과 외교적 소통으로서의 전쟁에서의 유목적 시그널에 대해 - 발제 : 강인욱 (부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고고학자)

	주제 3 – 의상에서의 유목적 시그널에 대해 – 발제 : 소황옥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종합 토론 – 이상일 (축제연구가, 무용평론가,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이사장) – 전수환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이론과(예술경영전공) 교수) –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기획실장) – 이승욱 (프리랜서 문화기획자) 네트워크 파티
Tree of culture 2011 in Buryat	■ Tree of Culture 2011 본 프로그램 주제 – "유목민족의 전통문화와 정보기술 : 상호작용 관련 이슈" (Traditional culture of nomadic n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 issues of interaction) 문화 프로그램 – 바이칼 호수 인근에서의 캠핑과 공연관람, 문화체험과 교류 Tree of Culture 2011 – 3 기관 Rector 의 주제 발표와 토론 – 3 기관 추천 주제발표자 발표와 토론 – Tree of Culture 에 대한 논의, 향후 방향에 대한 대화와 계획 네트워크 파티
Post Tree of Culture, Seoul 2011	■ Post – Tree of Culture 2011: 한국 프로그램 주제 – “Tree of Culture in Buryat" 논제와 토론결과 공유와 소통 – "Tree of Culture"를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들 주요 참석 자 – 사회 : 추미경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상임이사,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 발제 : 강준혁 (문화기획가,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장), 이상일 (축제연구 및 무용평론가, 성균관대 명예교수), 강인욱 (부경대학교 역사학과교수), 곽진석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소황옥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네트워크 파티

2008 년 3 Rectors' Meeting 이 처음 시작되면서 <Tree of Culture>의 연례적 개최를 합의하고, 상호 문화교류의 협정을 구체적 내용으로 약속했던 이곳에서 다시 2011 년 <Tree of Culture>를 개최하게 되었다. 2008 년 이후 두 나라에서 한 번씩 주최한 이후 ESSACA 에서 개최함으로써 사전 미팅 이후 공식 프로그램으로서는 세 나라의 기관에서 한 번씩 운영하게 된 셈이다. 지난 3 년 동안은 주제의 심도 있는 개발과 운영보다는 세 주최자들 간의 치밀한 이해와 문화적 교감에 힘을 기울여왔다. 2011 년까지는 <Tree of Culture>의 초기적 단계로 삼국이 이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율하고, 특히 교류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형성에 더 초점을 두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처음 3 Rectors' Meeting 에 함께 했던 동료들, 그리고 향후에 또 멤버가 다소 바뀐다 하더라도 <Tree of Culture>에 참여했던 주요한 멤버들은 항상 공식 프로그램의 일부로 교류하고 만나는 코너가 있을 필요가 있다. <Tree of Culture>의 처음 취지가 문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실질적 소통, 그리고 구체적 협력 작업을 모색하자는 것이었고, 그 핵심에는 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Tree of Culture>의 추진과정을 보다 질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운영구조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움은 2011 년 브리야트에서 진행되는 <Tree of Culture>의 주제에 제한된 논의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Tree of Culture> 본 개최를 중심으로 Pre & Post Program 을 자체적으로 기획, 운영함으로써 주제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줄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움은 <Tree of Culture>와 관련한 논의의 깊이를 키우고, 또 논의에 참여하는 범위를 다양하게 넓히고자 한다.

실제로 2008 년 3 명의 렉터로 시작되었던 논의 자리는 2009 년, 2010 년을 거치며 참여자들이 조금씩 확장되어 왔으며, 2011 년에는 참여자가 보다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 이제 다음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시작할 때가 되었다. 2008 년 바이칼 호수 Pre-Meeting 을 통해 연례적 미팅을 공식화하고 국제문화포럼 <Tree of Culture>의 운영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내었듯이 다시 2011 년 바이칼 호수에서의 <Tree of Culture> 기간 동안 향후의 꿈과 계획에 대한 3 개 기관(렉터)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SESSION 1

무속 · 무예 · 무용을 통해 찾아보는 유목민족의 흔적, 그 비밀스러움

The traces and mystique of nomadic people through the shamanism, martial arts, traditional dance.

발제

강준혁 - 문화기획가, 성공회대 문화대학원장

발제 1.

무속·무예·무용을 통해 찾아보는 유목민족의 흔적, 그 비밀스러움

강준혁
문화기획가, 성공회대 문화대학원장

- Prologue. 무巫, 무武, 무舞 분리가 無이던 시대

인간은 확실한 사회적 동물이다. 수십만 년 전부터, 아니 인류의 흔적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시기부터 인간들은 모여 사는 동물이었다. 그들은 함께 사냥하였으며, 함께 채취하였고, 함께 살아 왔다. 사냥처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가 아닐지라도, 즉 저녁때나 또는 추울 때 동굴 안에서나 그들은 유희적 생활도 함께 나누었다. 그러하니 인간은 개미나 벌처럼 사회적 동물로 생겨난 것이리라.

무리지어 생활하게 되면 자연히 리더가 결정되기 마련인데 이는 그 집단이 에너지를 필요 없이 낭비하지 않으려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동물의 세계에서는 힘센 개체가 자신의 유전인자를 더 많이, 또 더 먼저 퍼뜨릴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 경우가 흔하지만, 인간사회에서는 반드시 그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자연계와는 다른 많은 요소들이 이에 작용하는 듯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이 지닌 독특한 에너지 체계이다. 인간사회에서는 동물처럼 힘이 센 자만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머리가 좋아 똑똑한 개체는 나름대로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생존방식도 지니고 있다. 감각이 예민하고 재주가 뛰어난 개체가 지니고 있는 에너지는 또 다른 형태이기도 하며, 이에 응하는 다른 개체를 사로잡는 마력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눈에도 안보이고 손으로 감촉되지도 않는 세계, 또는 시공간을 초월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개체가 있다면 이는 그가 속한 무리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한 요소였을 것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집단의 리더들이 등장하게 되는 초기 부족국가시대부터 이러한 신령스러운 힘을 지닌 개체가 그 집단의 리더로 등장하게 된다.

제정일치시대는 상당히 오래 지속되어지지만 대부분은 선사시대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뇌리 속에는 인류가 거쳐 온 작은 통로정도로 간주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직도 이동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지의 세계와 접해야 하는 사람들, 부단한 변화 속에서 살아야 하거나 또는 물리적으로는 정착하였지만 의식은 아직도 떠도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영성이 높은 리더를 갈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유목민들은 제정일치시대를 연장시키고 있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겠다. 즉 끊임없는 이동과 변화 등은 예측의 힘, 그리고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위해서는 자연 속에 동화되어 살아 갈 수 있는 길로에 인도와 지혜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유목민들은, 특히 아시아 북부를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오랜 세월 살아온 유목민들은 앞서 언급한 독특한 인간 에너지 체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일찍이 육체적, 정신적, 감성적, 그리고 영성적으로 큰 에너지를 지닌 자를 리더로 옹립하여 왔다. 그 리더는 현명하고 매력적이었으며 힘과 예지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였을 것이다.

즉, 무巫, 무武, 무舞가 분리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 우리 몸짓과 노마디즘

서구식 무용이 근육을 펴서 표현하는 스트레칭 기반 동작이라면 우리의 춤은 안으로 말려들고 구부림을 많이 사용하여 꾸부정하게 보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남방아시아의 무용들이 손가락을 이용한 수화식 표현을 즐겨하고 얼굴의 표정을 또 하나의 표현수단으로 삼고 있기에 짙은 분장(이를 강조하기 위한 흰색 바탕도 포함하여)을 기본으로 삼고 있지만, 우리를 포함한 북방계 유목 아시아민족들의 춤은 신체의 선, 특히 팔과 어깨의 선을 매우 중요한 표현도구로 삼는다. 손가락이나 얼굴표정을 보라고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팔의 연장선을 살리기 위한 장삼이나 막대 그리고 기타 특별한 도구(부채, 검, 방울 등)를 사용하곤 한다.

우리 춤에서 팔과 어깨가 직접적인 표현을 위한 부위라면 발과 다리는 내적인 리듬을 끊임없이 느끼게 하는 「출렁임」, 그리고 동작의 속도와 움직임의 폭을 알려주는 공간감 등을 표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특히 어떠한 특정 동작 없이도

우리를 흥겹게 만들 수 있는 그 출렁임은 무용수들의「오금질」로부터 오고 있는데 대부분은 치마나 도포자락에 가리워져서 동작자체보다는 리듬감만을 전해 주게 된다.

이러한 오금질은 기마유목민족들에게는 가장 필수적인 신체훈련으로서 말을 타는데(말에 오르는 점프력, 그리고 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힘 등) 유용할 뿐 아니라, 말타는 사람들의 흥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기초 동작이기도하다. 이와 더불어 풍물판굿이나 승무 등에서 보이는 연풍대돌기, 자반뒤지기 등은 순간적으로 말에 올라타기 위한 기반동작으로 가장 유효한 것이다. 이는 또한 무예에서의 발차기, 공중 발 돌려차기 동작을 위한 기초 동작이기도 하다.

풍물판굿에서 상쇠가 보여지게 앉아서 발 바꿔 가면서 채찍질 하며 앞으로 나가는 동작 또한 북방기마민족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무용동작이다. 한편 우리의 굿판에서 무당들이 허공으로 치솟으면서 추는 춤, 버꾸잽이들의 솟을상(소고를 치며 위로 치솟는 동작) 등도 북방기마민족의 동작들이다. 특히 풍장, 풍물, 두레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으면서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인들에 의해 농악이라고 새로이 이름 지어져서 우리도 그렇게 불러왔던 풍물 굿은 실은 북방기마병들의 예비군과 같은 성격을 지나고 있다. 그들이 행진할 때는 길군악이라는 장단을 치며 앞서 말한 기마병들에게 필요한 모든 동작들을 포함한 춤을 추게 되는 것이다. 특히 그 구성을 보면 영기, 농기를 든 기수로부터 시작하여 상쇠, 부쇠, 3쇠, 수장고, 부장고 등등 군대조직과 거의 유사하며 그 복장은 완벽한 군인의 복장이다.

1966년 농악 12차 가락이라는 이름으로 무형문화재 제 11호로 지정된 경남 삼천포 풍물 굿에는 길군악 외에 두 개의 진으로 나누는 쌍진굿(또는 쌍진풀이), 고동모양으로 감아도는 고동진, 신장을 부르는 강마진, 승패를 결하는 황화진, 진중을 먼지로 가득 차게 만드는 운무진, 원진으로 포위하는 금쇄진 등등 군사적 용도의 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작에 관련된 용어에 있어서도 '~치기' 등 공격적 용어가 많다. 더구나 소리가 큰 쇳소리나, 상모를 시각적 신호로 사용하는 점 등은 매우 넓은 들판에서 적절한 신호체계이어서 북방유목문화의 일부임을 쉽게 알게 해준다.

또 한편 도구에 있어서도 우리의 무용, 무속, 무예는 검을 공통적으로 즐겨 사용하고 있다. 검은 고대로부터 왕이나 군장들의 상징물이어서 그 시대의 그 리더의 관할 영역을 알 수 있게도 해준다. (ex. 고조선과 비파형 동검 등) 또한

검은 중요한 무구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방울, 동경등과 함께) 그러나 검을 일반 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겠는데 우리나라의 검무는 비록 그 검의 형태는 많이 변했지만 잘 보존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역시 호방한 북방유목민들의 흔적이라 할 수 있겠으며 무속에서 쓰이는 살풀이 천 역시 검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외형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욱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우리의 巫, 武, 舞가 지니고 있는 호방한 결일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유목민들은 끊임없는 이동 덕분에 공연장 같은 시설들은 염두에도 두지 않은 몸짓들을 만들어 냈지만 남방아시아의 춤처럼 미세한 표현들을 피하였으며 그 움직임에 있어서도 가벼운 것을 멀리하였다. 그래서 그 움직임은 굿판이건 춤판이건 또는 무예를 겨루는 판이건 간에 언제나 무게가 있으며 호방하였다. 발걸음은 뒤꿈치로 지려 밟는 발걸음은 항상 가볍지가 않다. 처용무이건 살풀이건 간에 마치 검을 든 무사의 걸음처럼 진중하고 묵직하다. 또한 우리의 몸짓이 보여지는 곳은 무대의 크기가 정해진 공연장이 아니기에 언제나 융통적이다. 들판에서 모닥불을 피워 놓고 보이는 몸짓들은 구경꾼들이 둘러친 범위 안에서 보여 질 뿐이다. 아무리 가까이 와서 쳐다보아도 손가락으로 이야기를 하려하지 않는다. 몸짓을 보여주는 이들의 기운은 주변의 자연과 하나처럼 통하여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 Epilogue. 상생의 무巫, 무武, 무舞 시대로

이제는 힘이 센 왕이 무격을 견제하고 위협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몸으로만 춤을 추지 예지력이 전혀 없는 무용가를 멸시하는 무격도 사라진 시대이다. 이제는 오히려 서로를 부러워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무속인이 무예적인 훈련을 통해 그 기운이 들뜨지 않고 반듯하게 중심이 서게 되면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며, 무용가가 무예가의 안정성과 밸런스 그리고 그러한 힘을 지니게 되면 뛰어난 무용수가 될 것이다. 또한 무예가의 동작 하나 하나가 아름답고 의미가 깊다면(내적 에너지가 개발되거나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자동화기가 난무하는 시대에도 그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게 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셋을 나누지 않고 같은 요소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전통적 인식관이 지속될 때, 우리는 세상 만물을 나누어서만 생각하던 분석의 시대가 가져온 오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SESSION 2

고대 리더그룹의 교육제도로부터의 무巫 · 무武 · 무舞

발제
추미경 - (사)문화다움 상임이사

발제 2.

고대 리더그룹의 교육제도로부터의 무巫, 무武, 무舞

추미경
(사)문화다움 상임이사

인류의 오랜 지혜와 가치를 찾아 현재에 접목하고자 하는 문화기획으로서 인류문화창고 프로젝트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가는 개방적 접근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여러 분야와의 통섭, 협업을 통해 문화적 상상력이 수반되는 포괄적 기획이자 해석으로 문화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본 발제는 학술적 연구 발표가 아니라 문화적 상상력에 기초한 제안적 성격의 발표임을 전제한다.

1. 왜 고대 리더그룹의 교육제도인가?

전반적으로 아시아 고대 역사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 특히 한국 고대 교육제도에 대한 자료는 더욱 파편적으로 전해져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문자로 기록된 역사자료가 드문 가운데 고대 국가 교육제도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탐구가 아직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정 속에서도 굳이 고대 리더그룹에 대한 교육제도를 보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진행되는 시대변화의 조건들이 고대와 맞닿아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과 더불어 고대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했던 그 지혜가 오늘날 새로운 환경에서도 가치 있는 지혜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21세기 시대환경은 통신과 이동에서의 혁명적 변화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압축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디지털 유목 환경을 필두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예측이 어려운 지속적인 환경변화, 이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로 이해되고 있다. 비록 정주환경이 물리적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수많은 정보홍수 속에서 정신이 떠돌 수밖에 없는 시대환경에 처해 있고, 과거 유목시대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의 부단한 변화 속에서 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유연한 대처능력을 키워야 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패러다임으로 사회적으로는 유목적 창의성에 대한 이슈, 교육적으로는 직무, 직업적 개념을 넘어서는 삶의 총체적 생애기술로서의 새로운 “역량”개념 등이 등장해 왔다. 그러나 유목민 정신의 강점(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유연성과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변화 속에서 유목적 창의성 이슈는 오래되었지만 이를 향한 접근방식은 일의 형식과 양적 범위에 집중되고 있어 일을 추진하는 정신과 태도의 변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창조도시 이슈에서도 창조적 가치의 중심은 물질적, 외형적 성과이지 정신적 가치의 변화에는 실천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심에 있는 교육의 현실은 더욱 그러하다. 교육의 전반적 모델은 서구로부터 차용해왔고, 문화예술교육 역시 그러하다. 교육의 궁극적 목표로서의 삶의 역량, 문화역량, 창의성의 모든 원천을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뿌리두지 않고 서구적 모델을 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량적 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또한 세분화된 전문 영역에 갇혀서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에서의 쏠림, 편협 현상이 두드러져 현재의 시대변화와 만나지기 어렵다.

2007년 한국을 방문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잘살기 위한 지식의 전달에만 집중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 교육에 대한 비판하면서 “한국의 많은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고 말한 바가 있다. 아프지만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외부의 인식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패러다임에 끌려가기 이전에 우리 역사와 문화의 뿌리로부터 전해져 오는 지혜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때문에 비록 사료가 부족하고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이를 위한 소통의 큰 걸음으로서 고대 교육기관으로부터의 전해져 오는 오래된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2. 고대 국가 인재양성 제도의 흐름

고대 국가가 성립되기 전, 소위 원시시대에는 학교라는 교육기관이 따로 있지는 않았지만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생존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직접 전하는 교육행위는 존재했다. 이 시대는 생존과 직접 연결된 학습이었으므로 목적의식도 뚜렷하고 학습동기도 높아 필요와 흥미에 따라 학습이 이루어지고 학습효과도 높았다고 교육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고대 국가시대로 진입하게 되면서 교육은 제도적 형식을 띠게 되는데 고대 국가의 성립 초기에 교육기관은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제도화된 측면보다 국가를 수호하는 중추 인력을 양성하는 복합적 사회제도로 자연스럽게 구축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회적 제도 속에서의 인력 양성은 일종의 복합적 인재양성요람으로 기능하였는데, 도를 닦음으로써 하늘과 통하는 제의적 수련, 지덕체를 연마하는 사회적 수련과 군사 교육적 수련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행합일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제도화된 교육기관으로의 전개는 고구려의 소수림왕 때 설립된 태학과 경당, 백제의 박사제도, 신라의 진흥왕 때 설치되었다고 알려진 화랑제도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고대 국가의 인재양성의 계보와 정신을 형성하는 근간에는 고대 환국시대의 신교 낭가제도, 단군조선시대의 국자랑 제도로부터 살펴보는 경향이 많다. 고대 환국시대의 신교 낭가제도는 배달국 제세핵랑에서 시작되었는데 고대 환국시대에 배달국(고대 조선을 가리키는 또 다른 나라이름)을 세운 최초의 낭도로서 환웅 천황이 거느리고 온 3000의 문명 개척단을 가리키는 제세핵랑은 신교의 종교 정신으로 무장한 군사집단이자 낭가정신을 연마하고 있던 청년집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단군조선시대의 국자랑은 <삼국사기>, <한국상고무예사>에서 상고시대(고조선)부터 '백두산을 중심으로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닦았던 젊은 남녀들'을 일컫는 말로 국가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제도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명산의 가장 뛰어난 곳을 찾아 국선의 소도를 설치하고 미혼의 자제, 즉 청소년으로 하여금 글을 읽고 활쏘기를 익히게 하며, 이들을 국자랑(國子郞)이라 부르게 하였다고 한다. 국자랑이 나와 다닐 때는 머리에 천지화를 꽂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국자랑을 일컬어 천지화랑(天指花郞)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낭가제도와의 연계성을 지닌 국자랑 제도는 고대국가가 형성되어 삼국으로 분리되면서 고구려의 '조의선인', 백제의 '소도무사', 신라의 '화랑'을 탄생시킨 원동력이었으며 전신이었다고 해석되고 있다. 이는 고려시대에 이르러 국가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국자감'이라는 교육기관으로 이어진다.

이상과 같은 고대 국가의 인재양성의 흐름은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립된 것이 아닌 가운데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객관적으로 정교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고대 인재양성에서의 일관된 전통과 맥을 보여주는 서사적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 고대 리더그룹 교육으로부터의 지혜: 조의선인의 무巫, 무武, 무舞

현대사회의 학교나 직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선배'는 고구려의 조의선인 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물론 현재 사용하는 선배는 나이, 연공서열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 다소 단순한 의미이지만 고대 교육기관에서의 의미는 전혀 맥락이 다른 일종의 사회적 역할모델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에서 고구려의 '선배제도'는 고구려 강성함의 근간으로 해석된다. '검은 빛깔의 조복(皁<검은 비단 조, 검을 조>服) 을 입은 선인'이란 뜻으로 선배 또는 선비라 불렸던 조의선인은 고구려 태조대왕과 차대왕 때 창설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선인(先人 또는 仙人)은 순우리말인 '선배'의 이두식 한자(漢字)표기이다.

<고구려 무용총 손님맞이 그림>

* 검은 옷을 입은 손님이 조의선인의 모습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선배'는 원래 신수두(臣蘇塗) 교도의 보통 명칭이었는데 태조왕 때에 와서 해마다 3월과 10월 신수두(臣蘇塗) 대제(大祭)에 모든 사람을 모아 혹은 칼로 춤을 추고 혹은 활도 쏘며, 혹은 깨금질도 하고, 혹은 택권(수박 또는 택견)이도 하며, 혹은 강의 얼음을 깨고 물 속으로 들어가 물싸움도 하고 혹은 가무(歌舞)를 연(演)하여 아름다움과 추함[美惡]을 보며, 대수렵을 행하여 그 잡은 양[射獲]의 많고 적음을 보아 그 내기에서 승리한 사람[一者]를 '선배'라 칭하고 선배 된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녹(祿)을 주어 그 처자를 먹이어 가실(家室)에 누(累)가 없게 하였다. 신수두(臣蘇塗)는 하느님(天帝,天神)을 모신 대신단(大神壇)이 있는 가장 신성한 숲(樹林)인데 하늘에 제사지내는 마니산 참성단이 이에 해당한다. 수두(蘇塗)는 신수두(臣蘇塗)의 대신단(大神壇) 을 본받아 각지방에 만든 신단(神壇)으로 마을마다 남아있던 당산(堂山)의 당집, 신목(神木)등은 그 유물들이다.

'선배'가 된 사람은 각기 편대를 나누어 한 집에서 먹고 자며, 앉으면 고사(故事)를 외우고[講] 학예를 익히며 나가면 산수를 탐험하거나 성곽을 쌓거나 도로를 닦고 군중을 위하여 강습(講習)하거나 일신(一身)을 국가와 사회에 바쳐 모든 어려움[困苦]을 사양치 않았다.'

선배 중에서 선행과 학문과 기술이 가장 뛰어난 자를 뽑아서 스승으로 섬긴다. 일반 선배들은 머리를 깎고 조백(皁帛)을 허리에 두르고 그 스승은 조백으로 옷을 지어 입으며 스승 중의 제일 우두머리는 '신크마리'-두대형 혹은 태대형-이라 일컫고, 그 다음은 '마리'-대형-이라 일컫고, 맨 아래는 소형이라 일컬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신크마리'가 모든 '선배'들을 모아 스스로 한 단체를 조직하여 싸움터에 나아가서 싸움에 이기지 못하면 싸우다가 죽기를 작정하여 죽어서 돌아오는 사람은 인민들이 이를 개선하는 사람과 같이 영광스런 일로 보고, 패하여 물러나오면 이를 업신여기므로 '선배'들이 전장에서 가장 용감하였다.

당시 고구려의 여러 가지 지위는 거의 골품(명문)으로 얻어 미천한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지는 못하였지만 오직 '선배'의 단체는 귀천이 없이 학문과 기술로 자기의 지위를 획득하므로, 이 가운데서 인물이 가장 많이 나왔다. 해상잡록(海上雜錄)에서도 '명립답부(明臨答夫), 연개소문(淵蓋蘇文)은 조의선인(皁衣仙人) 출신이다.' 라고 하였고 또 연개소문의 아들 남생(男生)이 '총명하여 9세에 선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하였다.

송도(고려수도 개경)의 수박(手搏)이 곧 선배 경기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수박(手搏)은 손바닥을 서로 마주치면서 하던 것에서 이름이 붙었으며 주로 고구려

땅인 북쪽지방에서 성행하였으며 왜정(倭政)때까지도 전수(傳受)되어왔다고 전한다.

신채호 선생이 해석하였듯이 고구려 시대의 조의선인 제도는 고구려 강성의 근원을 제공한 국가의 리더 양성기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핵심에는 문무(文武)를 겸비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이치와 통하고자 하는 영적인 역량을 수련하여 나라 안의 일반 백성들을 지도하는 덕망 있고 신망 받는 전인적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의 지도자로 뽑아 운영하였다는 점이다. 오늘날에는 각 부문별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하지만 고구려시대에는 문무에 능한, 즉 다방면에 능한 멀티전사(戰士)중의 전사를 선발하였던 것이다.

매년 동맹(東盟)같은 국가 거대행사로 사냥과 가무(歌舞), 경연 및 무술시합을 열어 종합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선배(=선인)라고 불렀고 이들이 무예와 학문을 심도 있게 연마하여 일반인들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고구려는 경당(敬堂)이라는 보통 교육기관을 지방마다 설치하고 선인들을 파견하여 일반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게 했다. 교육내용은 인문역사와 무예를 중심으로 한 역시 문무겸비의 전 인격체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들 경당에 소속되어 선배들을 따르면서 국토방위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을 후배(後輩)라고 부른다.

고구려가 선배와 후배로 뭉쳐진 전사군단을 보유하게 된 것은 전통적으로 유목적 기질을 지닌 기마전사로서의 습성이 배어있었기도 하였지만 선배라는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그 전통을 끊임없이 계승하고 발전시키려 노력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선배'는 '전사중의 전사'이다. 진정한 전사로서 국민적 추앙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국가사회를 결집하고 미풍양속을 지켜가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기에 고구려가 그토록 강성하여 동북아 대륙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의선인은 선비제도라는 특별한 교육체계에 의해 양성되는 문무겸전의 인재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유년의 어린 나이에 선발되어 신체발달에 부응하는 매우 정교한 지적, 정서적, 신체적 훈련과 교양을 통하여 보다 완벽한 심신의 능력을 갖게 된다. 조의선인은 누구보다도 사물과 현상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들이 부딪치는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며, 이를 해결할 심리적, 물질적 능력을 갖도록 훈련되었다. 을지문덕 등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이들도 모두 조의선인들이었고, 우리 문화전통에서 말하는 선비란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덕성과 실천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4. 고대 리더그룹 교육으로부터의 지혜: 화랑의 무巫, 무武, 무舞

고구려의 조의선인제도는 신라의 화랑제도로 그 문화가 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화랑세기> 등에서 나타나는 화랑제도의 기원과 운영에 관해서는 당시 유교적 왜곡과 편견이 개입되었다는 해석이 있는 가운데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에서는 고구려 조의선인제도의 계승적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 즉, 화랑제도는 신라에서만 만들어진 독특한 제도의 측면보다는 고대사회로부터 국가적 인재양성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는 청소년집단으로서의 의미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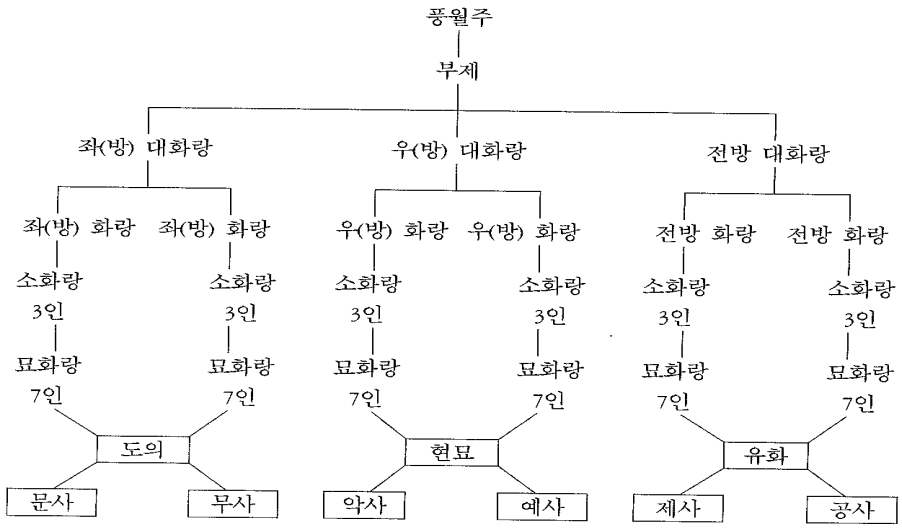
<조서상고사>에 따르면 화랑제도는 신라의 진흥대왕이 고구려의 <선배제도>를 모방해 고구려의 선인(仙人)과 구별하고자 국선(國仙)이라 칭하고 조의(皁衣)와 대비하여 신라의 선배가 꽃으로 장식한 것으로 근거로 화랑(花郞)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해석한다. 신라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기마민족의 후예로서 이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일종의 여사제 집단인 원화제도(여자를 중심으로 청년무리들이 구성한 제도)를 발전시켜 남자화랑과 화랑을 따르는 낭도(郞徒)로 구성된 청소년 조직을 만들게 된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화랑(花郞)과 유사한 존재는 화랑도(花郞道) 창제 이전에도 존재하였고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사회적인 풍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원화제도에서 화랑제도로의 전환에서의 자연스러움, 화랑 조직 속에는 원화 제도의 성격이 어느 정도 내재해 있다는 점 등을 짐작할 수 있다.

화랑제도는 총지휘자인 귀족출신의 국선화랑과 화랑, 평민들로 구성된 낭도가 겹합된 조직으로서 신라의 귀족사회와 평민사회를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했다. 화랑제도의 사상적 배경에는 최치원의 낙랑비 서문으로부터의 “풍류라고 부르는 현묘한 도(道)”가 있다. 신채호 선생은 <조선상고사>를 통해 이러한 풍류에 대해 중국 문자의 놀고 즐기는 풍류의 의미가 아니라 음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음악과 시가를 통한 인간세계의 교화에 해석의 중점을 두고 있다.

통일신라를 이루는 데 근간이 되었다고 여겨지는 화랑제도는 신라의 고유한 토속적 사상에 기초해 유교, 불교, 도교가 습합된 원리를 중심 사상으로 도의교육, 시가와 음악을 중심으로 한 정서교육, 국토순례에 기초한 신체교육의 영역에서 국가적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였다.

이와 관련 <화랑세기에 나타난 화랑의 이념과 향가(신재홍, 2005)>라는 논문에서 화랑도의 교육이념을 도의-현묘-유화'로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도의'의 이념, 우주의 섬리를 직감이나 과학을 통해 탐구하고 사고와 감정을 자연의 본성에 일치하도록 발현시키는 것이 '현묘'의 이념, 왕통 및 인통을 이어나가 종실을 보존하고 태양신을 위시한 자연신과 시조를 비롯한 조상신을 경배하여 국가의 위신을 지키는 것이 '유화'의 이념이라고 제시한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이념을 인문과 천문과 신성의 세 범주로써 정립하였음을 뜻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문노조에 기록된 화랑 조직을 이념 및 업무분장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은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



〔표 1〕 화랑 조직표 및 업무분장

이 표는 화랑 조직에서 화랑들로 구성된 선문과 낭두, 낭도로 구성된 낭문 중 선문의 위계와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총 71명의 화랑들이 좌.우.전방의 3부에 23명씩 배속되었다. 3부 중 좌방은 도의, 우방은 현묘, 전방은 유화를 이념으로 삼았고, 구체적인 업무로서 좌방은 문사와 무사, 우방은 악사와 예사, 전방은 제사와 공사를 담당하였다. 이 일들은 서로 경계가 뚜렷하다기보다는 화랑 각자가 겸비해야 할 소양이자 덕목으로 함께 연마되었을 것이다.

화랑제도로부터의 무巫, 무武, 무舞 전통을 이러한 이념의 전개와 연동해서 볼 때 화랑도는 무사를 위주로 하는 도의의 이념, 예술창작 및 자연탐구를 통한 현묘의 이념, 신성한 혈통을 숭상하는 유화의 이념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실천적으로는 공동체적인 집단생활과 수련을 통해 전인적 발전을 추구하는 리더그룹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 고대 교육문화로부터 전해지는 비밀스러운 지식

조의선인, 화랑으로부터의 덕성과 실천력이 계승된 것이 조선의 선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신세계와 영적인 역량, 미적 세련됨, 군사적 실천력을 갖춘 덕망 높은 사회의 리더로서 선비문화에 대한 이해보다는 당쟁에 목매는 사대부 유학자로서의 편협한 이해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전통문화의 맥이 상당 부분 단절되어 왔던 현대의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고대 교육문화로부터 전해지는 지혜와 지식이 너무 적어 그 자체가 비밀스러운 존재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고구려의 선배제도는 조선의 선비정신으로 이어져 나라에 국난이 일어날 때마다 의기롭게 대처하는 힘의 원천으로 그 전통이 이어졌을 것이다. 또한 선비정신은 일제하의 여러 운동가들의 독립운동 및 문화운동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도 면면히 이어지는 비밀스러운 지혜와 지식이 있을 것이다. 미래를 위해 한국사회를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한국을 발견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고대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현재화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현대사회 속에서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으로써 잃어버리고 있는 교육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 고대 리더그룹의 교육제도에서 지향했던 무巫, 무武, 무舞의 통합적 가치와 교육방법의 전통이 21세기 환경에 새롭게 해석되어 응용되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가장 미래적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구 중심의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된 교육의 전통,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로부터의 철학적 기초를 이끌어내어 고유성을 확보함으로써 오히려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성의 전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SESSION 3

기마민족의 말馬 문화로부터의 무巫 · 무武 · 무舞

The shamanism, martial arts, traditional dance from the horse culture of equestrian people.

발제
강인욱 – 부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고고학자

발제 3.

기마민족의 말馬문화로부터의 무巫 · 무武 · 무舞

강인욱
부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고고학자

고대 동아시아의 유목세계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참으로 다양하며 광범위하다. 말이 인류의 역사에 들어온 이래 초원지역을 중심으로 인류의 동반자가 되었고, 그들이 차지하는 역사에서의 비중은 단순한 탈 것 그 이상이었다. 말은 초원의 사람들 생활을 극적으로 바꾸었고, 그들의 복식, 종교, 제사 등 광범위하게 그 영향을 미쳤다.

이번 발표에서는 나에게 주어진 화두는 무巫 · 무武 · 무舞이다. 한글로 같은 발음이라는 운율을 따른 명명이며, 동시에 의례로서의 말, 전술로서의 말, 그리고 축제의 중심에선 말의 의미를 밝히려는 의미이다.

I. 야생마에서 유목민의 동반자로

초원에서 야생하던 수많은 굽 달린 동물 중 하나였던 말은 일찍이 구석기시대부터 인류의 관심을 끌어왔다. 스페인의 후기 구석기시대의 대표적인 동굴 유적인 알타미라에서도 화려한 말 그림을 자주 볼 수 있다. 구석기시대의 말그림은 스페인뿐 아니라 알타이에서도 발견되었다. 알타미라 동굴이 화려한 채색화라면 알타이의 칼구타(Kalguta) 유적의 그림은 돌을 쪼아서 만든 암각화다. 칼구타의 말그림은 얼핏 보면 윤곽선만 간략하게 그려서 표현 한 듯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접혀진 뒷발이라든가 몸통 부분이 역동적이다. 아마 말의 습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린 듯하다. 게다가 배는 약간 볼록하게 되어서 마치 임신한 것처럼 보인다. 초원지역답게 동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말 그림이 발견된 것이다. 수많은 초원의 동물 중 하나였던 야생말이 인간의 역사를 바꾸는 획기적인 계기는 약 6,000년 전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났다.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은 말을 단백질의 공급원인 목축동물에서 벗어나 말을 타고 다닌다는 기발한 발상을 하게 되었다. 당시 중앙아시아 초원지역의 사람은 다양한 동물을 목축하면서 자연스럽게 각종 동물들의 특징들을 잘알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말은 지구력은 약하고 거칠어서 다루기는 쉽지 않지만 어떤 동물보다도 빠르게 달린다는 점을 주목했을 것이다. 이동이 생명인 초원에서 수백, 수천마리의 목축동물을 관리했던 당시 목동은 자연스럽게 말떼 중 한 마리를 탈 것으로 이용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재갈이 있다고 해도 자유자재로 말을 타고 다닌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말의 등뼈는 울퉁불퉁하고 튀어나와서 자칫하면 승마인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다. 야생마를 길들인다는 것은 때로는 자신의 목숨과 바꿀 만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달리고 더 좋은 목초지로 이동하고자 하는 유목민들에게 말은 치명적인 유혹이었을 것이다. 말을 길들이는 자는 곧 초원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말이 인간의 동반자로 되는 순간은 바로 인간이 초원을 지배하는 첫 번째 과정이기도 했었다.

말을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게 하려면 말의 입에 재갈을 채워야한다. 보통 두 번째 어금니를 빼거나 갈아서 그 사이에 재갈을 끼운다. 기승자가 재갈을 당기면 엄청난 압력이 말의 이빨에 가해지니 말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말이 단백질 공급원에서 타는 용도로 바뀌는 과정을 밝히려면 바로 재갈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 말의 사육과 재갈 사용의 기원을 밝혀주는 중요한 유적이 있다. 바로 데레예프카와 보타이 유적이다. 유라시아 초원의 서쪽 드네프르 강 근처의 유적인 데레예프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이른 재갈의 증거가 나온 바 있다. 여기에서는 말을 방목했을 때 썼던 울타리 흔적과 함께 수백 마리의 말뼈가 한데 묻힌 일종의 제사 유적이 발견되었다. 발굴된 말 중에서 아래쪽 어금니가 좌우 각각 한 개씩 인공적으로 빠져 있는 것도 발견되었으니, 목축하던 말 중에서 일부에 재갈을 채워서 탔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마 말을 치는 목동이 너무 빨리 달리는 말들을 다루다가 자기가 직접 말을 타게 되었고, 그래서 키우던 말 중 하나를 골라서 재갈을 채운 것으로 생각된다.

Ⅱ. 武 : 말 무기의 도구로 변하다.

말에게 재갈을 채워 길들인 후에 말의 기능은 단순한 운송이 아닌 인간이 서로 죽이는 전쟁 무기로 등장한다. 바로 전차가 나온 것이다. 말 위에 타는 기승용이 아닌 2~3마리의 말을 끌고 뒤에 수레를 붙여서 다녔던 것이다. 말에게 처음으로 재갈을 물린 것은 기원전 30세기, 전차가 등장하는 것은 기원전 25세기였다. 전차가 등장하면서 인간과 말의 역사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한다. 바로 인간 사이의 전쟁에 말과 말이 끄는 전차는 가공할 무기로 둔갑한 것이다.

전차(chariot)라고 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영화 '벤허'의 전차경기 장면을, 젊은 사람들이라면 '글래디에이터'의 원형경기장에서 박진감 넘치는 전차경기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사실 로마시대 때에 전쟁에서 전차의 의미는 많이 퇴색했지만 여전히 힘과 권위의 상징이었다. 세계 고대사를 움직인 첨단무기였던 전차는 시베리아에서 기원해서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수레가 인류의 역사에 등장한 것은 기원전 3,000년 경이었지만, 빠른 속도로 전쟁을 수행하는 바퀴살을 사용하는 차축(spoke)이 있는 전차는 기원전 20세기 경 서부 시베리아에서 개발되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안드로노보문화 사람들로 기원전 20~13세기에 시베리아 초원에 살았던 인도-이란인 계통으로 아리안족의 선조이다. 안드로노보문화의 전차는 기원전 18세기경에 근동지역으로 전파되었고, 기원전 13세기경에는 근동의 역사를 뒤흔드는 사건을 주도한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처음 전쟁으로 맞서는 그 중심에 전차가 놓였던 것이다. 세계 최초의 문명 간 충돌(이집트-메소포타미아)인 람세스 2세의 카데쉬 전투도 바로 전차전이었다. 당시 경쟁적으로 각 지역은 전차를 개발했고, 그들의 전투는 결국 양측 모두의 승리(?)로 끝났다. 각각의 문서에는 자기의 승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람세스 2세도 더 이상 메소포타미아지역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히타이트제국도 카데쉬 전투로 국력을 소모해서 멸망의 길로 갔으니 결국 승자는 없는 셈이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카데쉬전투 이후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기원전 1259년에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설형문자로 기록된 이집트-히타이트의 평화조약은 지금 뉴욕 유엔본부 1층에 그 사본이 전시되어 있다. 평화를 바라는 유엔의 이념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카데쉬전투는 결국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카데쉬전투가 있기 600여 년 전에 안드로노보인의 전차가 근동지역에 도입되었지만, 파괴력을 지닌 전쟁무기로 개량한 사람은 히타이트인이었다. 히타이트 언어로 기원전 14세기에 기록된 '키쿨리문서(kikkuli text)'는 당시

히타이트인들이 전차에 쓰는 말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키웠는지 알 수 있다. 건초, 마구간에서 실제 주행법에 이르기까지 그 세밀함은 요즘의 웬만한 말 조련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그림 1) 러시아 알타이 아드르 - 깐 암각화유적의 전차

시베리아 초원을 중심으로 살았던 안드로노보문화의 전차는 기원전 15세기를 전후해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로 모두 전파되었다. 남쪽으로는 인더스문명을 파괴시키고 새로운 아리안족의 문화를 일으켰으며, 중국에서는 상나라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황량한 벌판인 줄만 알았던 시베리아 초원지대가 세계 4대 문명을 움직이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전파시켜서, 약 3000년 전 세계사의 판도를 급속도로 뒤바꾼 원동력이 된 것이다.

세계2차대전에 독일과 유럽을 뒤흔든 히틀러의 나치즘하면 떠오르는 무늬는 굽어진 십자가, 즉 스와스티커(Swastika)이다. 태양 또는 행복을 상징하는 이 무늬는 엉뚱하게 파시즘의 상징이 되었지만, 사실 그 기원은 전차를 발명한 안드로노보문화에서 기원했다. 스와스티커는 신석기시대부터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데, 바로 히틀러가 사용한 스와스티커는 산스크리트어인 svastika에서 기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의 인도이란어족 문화에서 기원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바로 시베리아의 안드로노보문화의 주민 또는 그 영향을 받은 아리안 족이 인도로 이주해서 스와스티커의 문양을 산스크리트문화에 전래된

것이다. 실제로 신타시타를 비롯해서 안드로노보문화의 토기에는 스와스티커의 무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2차 대전 중 히틀러는 순수한 아리안족의 보존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많은 유태인과 집시들을 살상하였는데, 정작 그가 생각하던 그 위대한 '아리안'족은 엉뚱하게 시베리아에 있었던 셈이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수많은 피해를 내고 결국 전쟁에서 패하는 원인이 됐던 스탈린그라드(현 볼고그라드) 전투가 벌어진 곳은 안드로노보문화의 서쪽 경계에 해당한다. 히틀러가 존경하던 아리안족 '조상님'의 음덕이 엉뚱하게 발현된 셈이다.

Ⅲ. 巫 : 말, 제사의 도구로 쓰이다.

부여를 유유히 흐르는 백마강, 여기에는 백제의 멸망과 관련한 백마의 슬픈 전설이 전해온다. 백마를 죽여서 제사로 바치는 풍습은 흉노의 왕인 선우가 중요한 맹약을 할 때에 쓰였다. 즉, 경로도(徑路刀)라고 하는 보검으로 백마를 죽이고 그 피를 술에 타서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한서』「흉노전」에는 刑白馬, 單于以徑路刀金留犂撓酒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유목민들은 말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무덤에 같이 묻었다. 알타이의 황금유물로 유명한 파지릭고분에서는 전사의 옆에 마구를 오롯이 장착한 말들을 같이 부장했다. 즉, 말은 단순한 '탈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천마'로 쓰였다. 천마하면 또 신라의 천마도를 빼놓을 수 없다. 발굴 당시에는 그냥 '155호'분으로 불리며 1973년 말까지 8개월에 걸쳐 발굴된 고분에서 신라 미술의 정수로 꼽히는 천마도가 발견되면서 천마총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천마도는 75×56×0.6㎝의 자작나무 껍질 위에 그려진 말 그림이다. 천마는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말다래(障泥)에 그려졌는데, 말다래는 달리는 말의 발굽에 채인 진흙이 기마인의 다리에 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말다래는 달리는 말의 옆구리를 넓게 덮기 때문에 기마인의 하반부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용도도 겸했다. 천마도의 말은 입에서 허연 입김을 내뿜고 갈기를 휘날리며 하늘을 헤쳐 나가는 듯한 역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천마도 덕에 155호분은 천마총이라 개명되었고 이후 발굴된 황남대총보다도 더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또한 경주 고분의 여러 유물과 함께 신라의 북방 초원문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꼽히게 됐다.

그런데 천마도의 천마에는 뿔이 달려있다. 그래서 혹자는 이를 중국 신화상의 '기린'이라고도 생각했는데, 사실 말의 머리에 뿔을 달아서 장식하는 풍습은 초원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초원민족의 수많은 무덤에 같이 묻힌 말들은 대부분 머리에 뿔 장식을 했으며, 제사나 의식에 쓰이는 성스러운 말에도 뿔 같은 장식을 했다. 기원전 7~3세기 알타이에서 번성한 파지릭문화의 적석목곽분에서는 다양한 말의 장식과 함께 말의 미라가 발견된 적이 있다. 모든 말은 예외 없이 머리에 뿔 같은 장식을 하고 있었다. 천마총의 뿔도 자세히 보면 V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파지릭문화의 뿔도 V자형으로 되어서 마치 사슴을 닮기도 했다.

죽은자를 데리고 저세상으로 가야할 말도 이미 이 세상의 말이 아니었다. 그들은 화려한 황금장식을 하고 뿔을 달아서 죽은 전사를 저 세상으로 인도했었다.

그림 2) 알타이 파지릭 고분에서 발견된 말의 미이라 머리에 뿔이 달려있다.

말을 숭배하는 풍습은 서기 5~9세기에 알타이 지역의 문화인 古투르크(돌궐)의 문화에서도 널리 분포했다. 지금도 러시아나 몽골에는 4각형의 유적이 많이

있다. 직경이 5~6m되게 4각형으로 돌을 쌓은 제사유적은 수천기가 분포한다. 그런데 정작 발굴을 하면 별다른 유물은 없는 채로 주변에서 말뼈들이 많이 발견되고, 가운데에 구덩이가 발견되었다. 이를 다시 복원해보자 4각형으로 제사구역을 마련하고 가운데에 나무를 심었다. 아마 세계수(世界樹)를 상징하는 종교적인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 말뼈가 발견된다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데에 필요한 말을 희생하고 난 흔적이었던 것이다. 밑의 <그림 3> 알타이의 데르-떼베에서 발견된 투르크의 제사유적을 보자. 한 가운데에 나무를 심었고, 그 위에는 장대를 걸어서 말가죽을 걸었다. 이러한 말과 나무를 이용한 의식은 투르크계 유목민족의 풍습에서 자주 보인다. 하늘로 말을 높이 건 것은 바로 말이 하늘과 땅을 잇는 전령의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말은 유목민이 일생을 같이하던 동반자였으니, 그들에게 하늘로 가는 길을 맡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그림 3) 몽골초원의 투르크시대 제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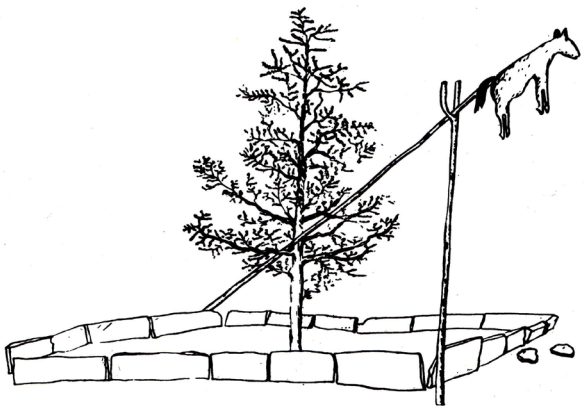


그림 4) 알타이 투르크 시대 제사유적의 복원도

Ⅳ. 舞, 춤을 추는 기마인들

고고학은 유물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보니 아무래도 무형문화재(춤, 음악)와 같은 과거의 문화를 복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유목민들은 자신들의 축제에 다양한 馬術을 곁들인 축제를 했을 것이다. 바로 현재의 몽골 나담축제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구체적으로 말을 어떻게 축제에서 썼는가는 거의 알수가 없고, 암각화에 일렬로 말과 사람들을 세운 증거뿐인 듯하다. 암각화의 경우 말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로 사슴과 말은 아주 비슷하게 표현되었고, 위에서 천마의 예처럼 말에 뿔을 단 것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말은 일렬로 표현되었고, 그 앞은 뿔달린 사슴(또는 천마)이 표현되어 있다. 바로 그 위에도 다리를 구부리고 춤을 추는 듯한 사람들이 일렬로 서있으니, 이게 아마도 말과 관련된 축제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정해본다.

그림 5) 러시아 알타이 칼박타쉬의 암각화

Ⅴ. 말, 분쟁에서 소통의 도구로.

말은 단순한 단백질 제공자에서 교통수단으로 바뀌면서 인류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동반자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말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전차에 쓰이면서 무기로 이용되었지만, 곧 하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연결고리의 상징으로 그 의미를 계속 유지해왔다. 성경 에스겔서 1장에는 구약시대 선지자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만날 때의 장면이 장황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가 본 것은 하늘에서 전차가 내려오는 천사가 탄 불의 전차였다. 구약시대에 전차는 신과 인간을 잇는 연결고리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말은 무시무시한 무기이기도 했지만, 지역 간의 소통의 속도를 몇 십배 증가시켜서 고대 문명의 발전을 촉진했다. 즉, 사람들은 말이 빠른 속도로 대량의 문물을 교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용했고, 이로 고대에는 초원을 중심으로 각 문명 간에 정보와 문물 교류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부산시립미술관에 전시된 백남준의 작품 '소통(transportation)'은 이전에 전차가 담당했던 역할을 이제는 비디오와 매스미디어가 담당한다는 뜻인 것 같다. 고대 사람들 사이 소통과 교류의 도구로 도입된 전차는 마치 현대의 인터넷과 같은 혁명적인 발전은 아니었을까? 전차는 또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진리를 상징하기도 했다. 인도의 아쇼카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자처했던 '전륜성왕'(Chakravartin)은 바로 거침없이 수레바퀴가

돌아가듯 세상의 이치와 진리를 관장하는 왕을 뜻한다. 온갖 거짓정보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개인의 행복을 앗아가는 현대의 인터넷과 매스미디어를 보노라면 지역 간의 교류를 상징하던 전차의 수레바퀴를 정의의 상징으로 내세운 옛 사람들의 뜻을 알 것도 같다. 말의 세 가지 의미 속 에서 말이 우리사이의 소통을 이어주는 도구로 재평가되길 바란다.

그림 6) 백남준 작, 소통, 전차의 이미지를 현대의 매스미디어에 비교한 상징적인 작품이다.

문화다움
DaumSociety

문화다움
DaumSociety

인류문화창고 프로젝트

Pre-Tree of Culture, Seoul 2012

「무(巫) . 무(武) . 무(舞)」

(사)문화다움

총 괄 추미경 (사)문화다움 상임이사,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운 영 강원형 (사)문화다움 기획실 팀장

조수현 (사)문화다움 기획실

펴 낸 날 ॥ 2012년 6월

펴 낸 곳 ॥ (사)문화다움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94-1 성북프라자 5층(136-823)

Tel. 02-364-2992, Fax. 02-364-2993

www.daumian.org

본 세미나 자료집은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Tree of Culture

주최·주관 | 문화다움 DaumSociety

후원 | 행정안전부